

질문의 강력한 힘

이정일 (동국대 트랜스미디어세계문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큰 배를 띄우려면 깊어져야 한다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서도 잘 살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종이배만 떠다닌다. 생각의 근육이 약해지면, 한 가지 해석방법에 몰입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숨긴다.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에, 어떤 이는 수첩에 의존하고, 어떤 이는 편법에 의지한다. 빌려온 지식으로 무장을 하지만, 생각의 질(質)이 자동적으로 높아지진 않기에, 미술관에서 작품 대신 설명서를 보느라 시간을 보낸다. 이런 비극적 결과가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실수를 막으려면,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무지(無知)란 우상에 맞서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은 제대로 생각하는 이가 적기 때문이다. 사회가 병든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해 전 한국사회가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

가』란 책에 열광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신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불투명한’ 그래서 ‘불공평한’ 세상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삶이 힘든 것은 그만큼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나 특검 속보를 지켜보며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 열심히 노력했을수록 좌절감도 크다.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TV 뉴스는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들의 숨겨진 삶을 속보로 쏟아낸다. 비선실세들의 위증과 후안무치를 보다 보면, 뉴스가 인간이란 광활한 현실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을 실감한다. 탐욕과 권력이 여전히 많은 이의 삶을 지배한다. 문학은 뉴스가 보여 주는 어리석고 부조리한 인간의 모순을 서사로 풀어낸다. 우리는 언제나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우리가 겪는 ‘도덕성의 실패’는 바로 이런 착각의 결과이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배움이 높아

“왜?”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세상에
사치스러워 보이는 질문을 던지라.

“왜?”

갈수록 무지는 깊어진다. 묻지 않는 것은 죄이다. 묻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떤 이의 고단한 삶이 우리에게 풍경이 된다.

톰 피터스(Tom Peters)는 경영학자이지만, 소설도 열심히 읽는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대부분의 경영학 서적들은 답을 제시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소설들은 ‘위대한 질문’을 던져준다. 그것이 내가 가르침을 얻기 위해 소설을 즐겨 읽는 이유이다.” 베트남 전쟁을 다룬 소설들이 있다. 바오 닌(Bao Ninh)의 『전쟁의 슬픔』, 베트 탄 누엔(Viet Thanh Nguyen)의 『동조자』, 팀 오브라이언(Tim O'Brien)의 『그들이 가지고 다닌 것들』,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같은 소설을 읽게 되면 묻게 된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것이었을까?’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나 할레드 호세이니(Khaled Hosseini)의 『천 개의 찬란한 태

양』 같은 소설을 읽게 되면, ‘왜’ 라고 묻기 시작한다. 불공평한 세상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왜’(why)라는 말은 많은 이에게 낯설게 다가온다. 우리는 이런 질문 자체를 용도폐기 시켰기 때문이다. 자식 키우며 먹고 살기도 바쁜 가장에게, 좁은 취업문을 뚫으려고 애쓰는 청년에게, ‘왜’란 질문은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까마득히 잊고 산다. 도정일 교수는 이것을 한국 사회가 흔들리는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사람은 살아야 하고 돈 벌어야 한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돈 버는가에 따라 인간은 인간이 되기도 하고 인간 이하가 되기도 한다 ... ‘인간 이하’를 거부하기 위한 질문 ... 이 근본적 질문을 폐기하는 사회는 ‘기본이 없는 사회’이다. 기본이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위기의 사회가 아닌가?”

진짜 질문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일깨운다

현명한 CEO가 원하는 전략은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 아닐 것이다. 새로운 길을 뚫고 가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는 제대로 된 명쾌한 질문 하나로 승부를 건다. 질문은 위기를 돌파하고 블루오션을 만드는 힘이 있다. 그래서 경영의 성패는 CEO가 ‘어떤 질문을 경영 전반에 적용하는가?’로 판가름 된다. 어떤 난제와 씨름해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답을 찾아낸다.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사소할 정도로 쉽다. 예수님은 낙담한 베드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물으셨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은 내가 원하는 답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보여준다. 질문은 내가 지금의 이 모습, 이 역할로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지만,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질문보다 오늘 채워야 할 실적이 더 다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고, 질문은 매장에 진열된 인기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갖은 노력 끝에 정상에 올라도 마음의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 이유는 그 자리에 서게 한 것이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라 목표였기 때문이다.

질문을 놓치지 말라, 혹은 질문으로 보이는 것을 놓치지 말라. 질문은 드물게, 생각보다 드물게 찾아온다. 명심할 점은 질문은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첫 단계를 놓치면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이 자신에게 나타나도 깨닫지 못한다. 질문은 종종 더럽고 떠맡기 싫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열 처녀 비유(마 25장)에서 '신랑'을 '질문'으로 바꿔보라. 열 명 중 다섯 명만 신랑을 만났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빌 윌슨(Bill Wilson)과 무하마드 유누스(Muhamad Yunus)의 이야기는 그 이유를 보여준다.

“1970년대 말, 젊은 전도사 빌 윌슨이 뉴욕 브루클린에 가게 되었다. 청년사역을 꿈꾸던 그에게, 친구는 브루클린을 다녀가라고 초청했다. 현지 상황은 생각보다 열악하고 위험했다. 떠나기 전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계단에 쪼그려 앉은 한 여자아이가 보였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자려고 커튼을 닫으려는데, 그 아이는 여전히 계단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일 나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윌슨 전도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허기진 아이를 데리고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였다. 엄마는 밤늦게 돌아왔지만 고맙다

질문은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 모습을 드러낸다.
종종 더럽고 떠맡기 싫은 모습으로 나타나
대부분 모른 채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결코 질문을 놓치지 말라.

는 인사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떠나려고 보니 그 아이는 계단에 또 나와 앉아 있었다. 그 불편한 현실에 윌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한참을 고민하던 윌슨은 다시 그 아이를 데리고 맥도날드에 가서 아이의 허기진 배를 채웠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다.”

“1974년 방글라데시에 엄청난 기근이 왔다. 현실은 냉혹하고 잔인했다. 아사한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보면서,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는 절망했다. 경제학 교수였지만 가난이란 문제에 무기력했다. 그 답을 찾고자 대학 근처의 한 마을을 찾아갔다. 한 여인이 5타카(Taka)란 돈을 빌려 대나무 바구니를 만들어 50포이샤(poisha)를 붙여서 판다. 이 50포이샤가 한국 돈 40원에 해당한다. 하루 종일 일해서 겨우 40원을 벌고 있었다.



단돈 40원이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다. 그 마을을 조사해보니 42명이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이 겨우 27달러였다. 겨우 27달러 때문에 42가구나 되는 사람들이 가난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너무나 어이없어 망연자실하던 유누스는 자신이란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라민 은행(Grameen Bank)이 시작되었다.”

빌 월슨에게, 그의 인생을 바꾼 질문은 ‘배고프고 외로운 한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무하마드 유누스에게, 그 질문은 ‘5타카 50포이샤’란 돈으로 나타났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없지만, 이들이 던진 질문은 가난과 소외와 편견의 벽을 허물고, 고결한 순환을 시작하는 첫 발화점이 되었다. 한국 사회는 이들

처럼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다. 다들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질문으로, 또 자신을 긴장시키는 질문으로 만들어 내는 그런 사람이 지금 절실하다. 이런 질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란 ‘꿈 너머 꿈’을 꿀 수 없다.

질문은 내가 무엇에 목마름가를 보여준다

질문은 바뀌 말하면 목마름이다. 질문은 내 삶의 무게 중심을 따라 바뀐다. 월슨과 유누스는 제대로 된 답이 떠오를 때까지 끈질기게 질문했고, 결국 타인의 삶을 바꿀 답을 찾아냈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언제나 그 답을 찾아낸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했더라도,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에게 한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질문을 찾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가, 란 사실이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나 한국 외교관들의 성추행 같은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이것을 푸는 방법은 썩은 사과 몇 개를 따서 버리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소망이라고 한다. 소망을 준 이유는 거친 현실에서 꿈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삶이 고달파지면, 자기 신념을 바꾸거나 침묵한다. 자기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긴장해야 한다. 중심을 다시 잡으려면, 어떤 경우든 타협하지 않는, 포기가 되지 않는 자신만의 신념을 재발견해야 한다.

뭐가 문제인지 모를 땐, 사는 게 별로 힘들지 않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되는 순간, 문제는 삶에 도전을 준다. 웬지 진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삶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그저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분명 다르다.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말들 하지만, 잘 사는 인생은 분명히 한끝이 다르다. 그 한끝의 차이를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이 차이를 모르면 작은 고난에도 쉽게 좌절하거나 소신을 굽혀 일을 망치게 된다. 소신을 가지려면 신념이 있어야 하고, 그 신념은 그가 가진 질문으로 확인된다.

주변을 둘러보면 위대한 삶을 산 크리스천이 적다. 대다수가 좋은 삶을 선택한 결과이다. 위대한 교회는 더욱 적다. 대다수가 좋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강 같고, 바다 같아서 그 위에 10만 톤, 20만 톤짜리 큰 배도 띄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써 가시는 진짜 이야기에 도전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오늘 같은 혼란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조금 늦었다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질문을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을 자신의 삶에서 펼쳐내야 한다.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더 나은 질문을 하고 그 결과로 더 나은 답을 얻는다. 세상에는 우열의 격차가 있지만, 그 격차는 누가 더 올바른 질문을 던졌냐에 따라 바뀐다. 하지만 이 일을 전문가의 몫으로 돌리지 않길 바란다. 전문가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전문가는 최고의 일인자가 아니다. 그는 '질문의 끈을 놓지 않고, 답이 나올 때까지 파 들어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전문가이길 바란다. 끈질기게 질문하여 평생 붙들고 살 질문을 찾길 바란다.



글 | 이정일

동국대 트랜스미디어 세계문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시를 연구하였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을 강의하며, J.M. 쿿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다레, 아룬다티 로이, 바오 닌 같은 제3세계 작가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